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8일(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주거재생과	담 당 자	• 도시정비담당 김철환 ☎440-3471 • 담당자 서원형 ☎440-345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갈등 문제, 4월 토론회에서 합의안 도출
- 5차 회의에서 조합·교회 측과 논의 진전, 토론회 통해 상생 방안 논의 -
- 조합 측 건물 원형 이전 등 대안 제시, 합의안 도출에 청신호 -

인천광역시는 동구 화수화평재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산업선교회 문제와 관련해 조합 및 교회 측과 오는 4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갈등을 매듭짓고 상생 방안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열린 시와 조합, 교회 3자 협의체 간 5차 조정회의에서는 그동안 팽팽했던 조합과 교회 양측의 분위기와는 달리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부시장은 “그동안 난항을 겪던 논의가 조합 측에서 구조안전이 가능한 범위에서 건물의 원형 이전 등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했고, 교회 측에서도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상생 방안 등의 논의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4월에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양측에서 시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논의 일정에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합의안 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시도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09년 9월 도시계획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돼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시공사가 선정되고, 일대 지역 18만㎡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83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10여 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도시산업선교회 측이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이어나가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부각됐다.

1961년 미국 감리교의 조지오글 목사에 의해 설립된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그동안 빈민과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고, 특히 1978년 이른바 ‘동일방직 사건’ 때 여성노동자들이 피신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뜻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